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건강캠페인  
내용분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양 나 미

2020年 2月

#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건강캠페인 내용 분석 연구




지도교수 박 경 숙

양 나 미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양나미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수 권	
위 원	박 경 숙	
위 원	이 서 현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 월

An Analysis of Health Campaign Contents Reported in  
Local Daily Newspapers

Yang, Na-Mi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Kyong-Su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1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5
제1절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과 건강보도 .....	5
제2절 헬스커뮤니케이션과 건강캠페인 .....	11
제3절 건강보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 .....	15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8
제1절 분석대상 .....	18
제2절 연구문제 .....	20
제3절 연구방법 .....	21
1. 연구대상 및 분석기간 .....	21
2. 분석방법 .....	21
3. 분석유목 .....	22
4. 코딩 및 분석 .....	27
5. 신뢰도 검증 .....	28
IV. 연구결과 .....	30
제1절 연구결과 .....	30
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의제 .....	30
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	36

V. 결론 및 제언	4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40
제2절 한계 및 제언	44
<b>【참고문헌】</b>	45
<b>【Abstract】</b>	50
<b>【부록 1. 코딩지】</b>	53
<b>【부록 2. 건강캠페인 기사 목록】</b>	55
<b>【부록 3. 건강캠페인 기사 사례】</b>	71

## 표 목 차

<표 1> 지역일간지와 종합병원 간 공동 건강캠페인 현황	19
<표 2> 건강캠페인 의제	22
<표 3> ‘의료정보’ 중 질병 의제 유형	23
<표 4> ‘의료정보’ 중 비질병 의제 유형	24
<표 5> ‘건강정보’ 세부의제 유형	26
<표 6>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제공	27
<표 7> 분석유목별 신뢰도 계수	29
<표 8>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30
<표 9>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질병의제	32
<표 10>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비질병 의제	33
<표 1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건강정보 의제	34
<표 1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여부	36
<표 13>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개수	37
<표 14>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주체 (다중응답)	38
<표 15>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유형 (다중응답)	39

## 국문초록

고령화 사회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 소득증가에 따라 현대인들의 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방 측면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대중매체에서는 건강 관련 섹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종합병원과 지역일간지가 올바른 건강상식과 의료지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신문지면을 통해 건강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일보, 제주한라병원과 제민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실시하고 있는 건강캠페인 기사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두 신문사가 건강캠페인을 시작한 시점부터 5년 동안이며, 전체 333건의 건강캠페인 기사를 대상으로 건강캠페인 의제와 이미지 제공 형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를 분석한 결과,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모두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다룬 '의료정보'가 건강한 삶과 관련된 '건강정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 의제 중 질병에 대한 분석에서는 두 신문사 모두 암을 가장 많이 다루었고, 이어 근골격계 질환, 안이비인후과, 뇌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질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의료정보 의제 중 비질병 유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병원소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과학, 의료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문수술, 시술을 소개하고 병원정책 및 실적을 다룬 병원 홍보성 기사가 가장 많았다. 건강정보 의제는 전체적으로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정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임신/출산/육아, 정신건강, 미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신문사 모두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캠페인 기사가 주로 의학 관련 정보들을 다루다 보

니,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는 신문사 모두 평균 2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병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공된 이미지 유형은 전체적으로 의사사진, 질병/영상사진, 참고사진, 검진/검사/진료사진, 그래픽 이미지, 치료/시술/수술장면 순으로 많았다. 신문사별로는 한라일보에서는 질병/영상사진이, 제민일보에서는 의사사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종합병원과 언론사가 협약을 맺고 건강캠페인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 제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캠페인 기사 분석이 주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캠페인 기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건강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건강캠페인, 건강보도, 건강정보, 의료정보

# I.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몇 해 전 제주지역의 102세 할머니가 서울지역 대형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환갑을 의미하는 60세를 ‘장수’라 여기던 과거와 달리, 최근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우리나라 장래인구를 추정한 결과, 2010년 1800여명 수준인 100세 이상 노인이 2060년에는 총 인구의 0.2%에 육박하는 8만4283명에 이를 것이라 발표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장수 인구가 증가한 결과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90년 71.28세에서 2013년에는 81.94세로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4년 12.7%에서 2030년에는 24.3%로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15).

반면, 의학의 발전과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암·심뇌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질병과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의 증가, 운동부족, 흡연과 음주,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등 각종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 신종플루, SARS, 광우병 등 신종 전염성 질환으로 불안감과 두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4)에 따르면, 건강분야는 정치, 경제 등 19개 분야에 비해 그 관심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신문, TV 등 대중매체에서도 개인 건강, 사회 보건, 의료 등을 다루는 기사와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은 건강기사 이외에도 고정적으로 헬스섹션을 다루고 있다. 종합일간지의 경우에도 2000년 3월 조선일보가 국내 최초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섹션을 도입하였고(김철중, 2002), 2002년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건강기사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헬스섹션을 선보임으로써 건강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정규숙, 2002). 지상파 방송들도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건강을 소재로 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KBS 1TV의 '생로병사의 비밀', KBS 2TV의 '비타민', EBS의 '명의' 등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근 JTBC의 '닥터의 승부', MBN의 '천기누설', 채널A의 '나는 몸신이다'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종류의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학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들이 30개 이상에 달하며, 심지어 헬스전문 방송도 등장했다(최민음·서필교·최명일·백혜진, 2014).

이러한 현상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에 주목했던 과거의 건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질병치료 못지않게 '질병을 예방하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를 언론사가 능동적으로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건강 관련 정보들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의 유통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만드는 건강염려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건강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논의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헬스기사의 상업화 현상으로 헬스기사가 공익보다는 의료기업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보도되는 반면 한국에서도 헬스기업, 대형병원의 영향력으로 헬스기사가 왜곡되고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상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암 치료에 획기적인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 최첨단 로봇장비를 이용한 다빈치로봇수술 등 다양한 의료기사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고 상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중매체는 의제설정, 프레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과 공중에게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헬스 관련 기사는 공중의제를 형성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외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헬스기사의 수준을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헬스 기사의 내용분석(McKeever, 2013), 제작과정(Tanner, 2004), 효과(Coleman, Thorson, & Wilkins,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국내에서의 헬스 관련 프레임 연구로는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언론의 위해 식품 보도(김은이·반현, 201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박경숙, 2002), 위험

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박성희, 2006), 식품위해(foodrisk) 보도의 뉴스 프레임(이귀옥·박조원, 2006), <오마이뉴스>와 전·현직 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이동근, 2009), 에이즈 뉴스 프레임(정의철, 2008), 신문의 암 관련 기사 평가(박정의·이상규, 2002) 등이 있다(오대영·최민음, 2016).

건강, 의료, 보건 등의 헬스 이슈는 매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며,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미국의 TV방송들은 대부분 의사들을 의학자로서 활용하고 있다(Hallin & Briggs, 2015; 오대영 & 최민음, 2016 재인용, p.103). 한국의 주요 신문, 방송에서도 별도로 의학전문기자를 두어 다양한 건강 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헬스기사는 미디어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헬스기사는 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국립대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 2011년부터 도내 일간지인 한라일보와 협약<sup>1)</sup>을 맺고 건강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의 질병 50선’ 등의 건강캠페인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학정보 등을 대학병원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형태의 기사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종합병원인 제주한라병원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2013년부터 도내 일간지인 제민일보와 협약을 맺어 ‘생명 연장의 섬 로하스 제주 프로젝트’란 건강캠페인 형식의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 관련 캠페인 기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의료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전문의가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의 주 역할인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1) 협약서 내용 : 한라일보사와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를 주제로 제주지역의 질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공동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제주’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라일보사’와 ‘제주대학교병원’이 제주지역 및 제주도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있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토록 한다. 1. 발생빈도가 높은 제주지역 및 제주도민의 질병을 선정하여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 2.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침 언론보도와 홍보물 제작 3.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본 협약이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한라일보와 제주대학교병원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고 시행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기획보도 연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010년 12월 20일)



질병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건강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건강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경우,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건강관련 기사 분석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종합병원이 지역일간지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강캠페인을 통해 어떤 건강기사를 제공했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캠페인 보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제1절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과 건강보도

의제(Agenda)는 언론이나 공중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이슈나 주제로 일상적인 내용부터 상황 의존적인 내용까지 광범위하며 미디어의제, 공중의제, 정책의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의제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강조 보도되는 이슈나 주제로 매스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강조, 보도하면 수용자 대중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문제, 즉 의제로 지각하게 되는데 매스미디어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의제설정기능이론(Agenda-setting theory)이다.

맥콤과 쇼(McCombs & Shaw, 1972)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미디어의 구체적인 기능을 언급했다. 특히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고 강조할수록 대중들은 그 아젠다를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대중들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미디어의 정보를 더 찾는 경향과 맞물려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김용선, 2016). 이처럼 의제설정 이론의 핵심 개념은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제시한 의제를 수용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데 있다(Chyi & McCombs, 2004).

미디어 의제설정 개념의 기원은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자들은 미디어가 공중을 위한 쟁점 구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을 공식화한 첫 번째 학자가 미국 최고의 저널리스트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이다. 리프만은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사람들은 실제 환경은 직접 파악하기에는 너무 크고 가변적이어서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진 상에 대해 반응한다고 보았다(Littlejohn, 1996: 429-430; Lippman, 1922: 16).

미디어의 의제설정 개념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은 정치학자 버나드 코헨(Bernard Cohen)이다. 그는 '언론과 대외정책(The Press and Foreign Policy)'에서 신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를 제시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를 제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코헨은 의제설정이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접하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한다고 보았고, 이것은 미디어 의제 설정 기능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Baran and Davis, 2000: 300; Cohen, 1963: 13).

의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체적 속성과 감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평가적 속성으로 구성된다(Wanta, Golan, & Lee, 2004). 실체적 속성은 이슈를 구성하는 정보이며, 평가적 속성의 일반적인 유형은 보도 논조다(McCombs & Ghanem, 2007). 속성들도 각각의 의제를 갖고 있다. 의제설정은 수용자에게 생각할 대상을 전달하지만, 속성의제는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Weaver, 2007). 이처럼 언론은 특정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공중의 논의 주제를 설정하는 의제설정효과를 갖게 되며(이준웅, 2001), 미디어 의제는 공중 의제에 영향을 주고 공중 의제는 다시 정책 의제에 영향을 준다(Littlejohn, 1996: 430).

미디어 의제의 특성과 관련한 중요한 가정은 의제가 상호 경쟁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어떤 의제는 다른 의제보다 중요하거나 현저하며 여러 의제들을 놓고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의제는 다른 의제들과 경쟁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쟁하는 두 언론사가 각각 서로 다른 이슈를 강조해서 보도할 경우 다른 이슈들은 상호 경쟁적인 미디어 의제가 된다. 결국 미디어 의제란 다른 매체가 언론사가 강조해서 보도하는 많은 의제 가운데 현저함을 지닌 의제를 의미한다(이준웅, 2001: 42).

매스미디어는 특정 집단 혹은 개인과 관련된 특정 문제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날의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관심의 영역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맥콤스, 아인시델, 위버, 1995: 86, 157-158).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제설정 효과는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에 대한 인지적 효과이므로 언론의 영향력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또는 그 중요성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의제설정 효과에 대한 치명적인 비판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그에 따른 연구업적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비판은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효과 연구

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의제설정 이론은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의제의 일부가 되었다(김우룡, 1992: 78).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제설정 효과는 언론의 일차적 효과이며, 보다 강력하며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이차적 효과를 유발하는 전제조건이다(이준웅, 2001: 45). 또한 의제설정 연구는 뉴스 미디어 이슈의 현저성이 공중 이슈의 현저성에 영향을 준다는 초기 개념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에서 ‘어떤 이슈가 강조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이슈가 제시되고 있는가’까지 연구되고 있다(Severin, Tankard, 1999: 318).

뉴스 미디어와 공중은 의제설정 과정에 있어 공동의 참여자이며, 의제설정 기능은 미디어의 공중에 대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McCombs, 1997: 442).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넓게는 생명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언론은 건강·의학에 관한 비전문가인 독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박희호, 1999). 이에 따라 헬스분야에서 미디어는 공중에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공중의제를 만들어서 공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Corcoran, 2007/2013, 132~133p).

더욱이 건강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미디어의 건강보도와 건강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정규숙, 2002). 2002년 실시된 ‘건강보도가 국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방송이나 신문의 전체 보도내용 중 건강관련 보도를 정치 혹은 사회 관련 보다 더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두혁, 2005). 미국의 한 리서치 결과에도 공중의 대다수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얻고 있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01: 16), 의사들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문적인 뉴스를 얻고(O’Keefe, 1970: 96), 신문 뉴스를 통해 최신 의학 관련 연구결과를 접하고, 건강관련 이슈를 설명할 때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2002: 61). 국가 공무원 혹은 정책결정자들도 건강과 의료의 주요 정보원으로 대중매체를 꼽고 있다(Wiess, 1974, 재인용: 조홍준, 1999: 214). 정부의 정책입안자들 역시 미디어의 정보에 의존하며, 미디어는 건강관련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Carter, 2002: 6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건강 커뮤니케이션은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공중에게

알리고 공중 의제 속에 건강에 관한 쟁점을 계속 유지시키지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이며,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공중에게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스위스 세계보건기구, 1998: 23, 63).

대한의사협회 보고서(2002)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건강 관련 보도에 대한 설문에서 56.9%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건강관련 보도를 보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한 경우가 있다는 사람이 61.9%, 병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가 41.2%로 나타났다(박두혁, 2005).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공중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며, 건강과 관련한 미디어 의제는 공중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규숙, 2003).

미디어가 헬스분야에서 제시하는 의제는 공중의 건강 이슈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형성하고 태도를 내면화하며, 행동패턴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정의철, 2013, 64~66p).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은 젊은 여성들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를 얻지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중년여성들은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미디어 의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Jones, Denham, & Springston, 2006). 또한 한국의 40~50대 여성들은 신문, 잡지에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유방암 검진 의도를 갖고 있었다(이선영, 2011).

신문이 제공하는 헬스기사의 내용은 건강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정책, 사건, 사고, 식품, 질병, 경제, 산업, 신기술, 인물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분야는 헬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과, 외과 등의 의료 분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뉴스는 긍정, 부정, 중립 등의 보도태도를 갖고 있다. 헬스분야는 의제, 의료분야는 실제적 속성이며, 보도태도는 평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오대영·최민음, 2016, pp. 108-109).

뉴스 미디어가 공중 의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단적인 예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정신병, 정신분열, 정신질환, 정신이상의 단어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69.9%를 차지하였으며, 정신병 환자는 난폭하며 범죄를 잘 저지른다는 내용을 전달한 기사가 50% 이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정신건강 관련 기사 논조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 건강관련 과잉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여 자신의 건강을 의심하고 공포심을 제공하는 '건강염려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2009년 4월에 발생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신종플루'에 대한 미디어의 건강보도와 건강캠페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계속 제시되어 왔다. 즉, 정부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손실,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건강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중에게 신종플루는 새로운 질병이었으며, 국민은 새롭게 발생한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중성이 결여된 미디어의 보도가 시민의 공포와 불안감을 키워 결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강재인, 2009). 건강과 질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건강정보들이 시민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제공하는 건강의료관련 기사가 지나치게 치료 중심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와 선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박재영, 1998). 정확성 면에서도 보도가 예방이나 조기진단보다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이나 치료에 치중해 있고, 간접적으로 병원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정보원 또한 대학교수나 종합병원 전문의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조흥준, 1999).

이외에도 심층기사가 적어 정보로서 미약하고, 잘못된 정보의 보도, 지나친 과장 확대 보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신약소개, 의사나 연구기관의 공명심에 의한 발표, 선정적이고 저급한 기사 소개, 왜곡된 정보, 상업적·홍보적 뉴스 생산, 미신적 내용과 속설을 흥미위주로 보도, 의학전문 기사가 적다는 점 또한 제기된 바 있다(김우룡, 2001).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 의료담당기자 트래포드(Trafford)는 좋은 건강의료 기사를 쓰기 위한 방법(PPPM)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일화적 이야기를 기사 속에 넣어야 하고(Personal Standard), 기사내용의 사회적·정치적 파장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Power Standard), 독자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Passion Standard), 경제적 가

치에 대한 설명(Money Standard)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래포드는 이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 한 기사 속에 들어 있어야 좋은 의료가사가 된다고 주장했다(강남준, 1998).

이와 같은 같은 의료관련 보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브라이언트 스탠퍼드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단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둘째, 뉴스 가치를 연구 성과의 중요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의학상의 연구 성과를 너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의료와 건강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의료는 발병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인데 반해 보건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이 유념해야 할 건강 문제를 의료문제와 뒤섞어 보도할 경우 많은 사람은 건강문제까지 의료부분에 의존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기 쉽다. 다섯째, 건강이나 의학 의료 관련 연구 성과가 너무 고무적이거나 너무 센세이셔널한 경우에는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홍수원, 2000).

## 제2절 헬스커뮤니케이션과 건강캠페인

의학 발달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다양한 신종질환의 등장 등 건강위기 요인의 증가, 스트레스원의 급증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러한 상반된 현실은 건강 관련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건강정보를 제공해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선택을 돕는다.

언론에서 다루는 건강정보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형될 뿐 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며 이러한 언론의 특성은 헬스저널리즘으로 나타난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0)는 헬스커뮤니케이션을 “개인, 조직, 공중들에게 건강 이슈에 관한 정보제공, 영향력 행사, 동기부여 방법”으로 정의했다(강희원, 2013).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중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중요한 공중의제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공중에게 알리고 공중의제 속에 건강에 관한 쟁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공중에게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불러 헬스커뮤니케이션은 헬스 저널리즘을 비롯 교육성 오락,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옹호, 조직, 위기, 사회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마케팅 등을 포괄한다(정규숙, 2003).

헬스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전달뿐 아니라 건강 이슈에 대한 토론 및 건강 관련 정책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헬스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목표 청중을 규명하고, 목표 청중에게 관련성 있고, 정확하고, 접근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전파해야 한다(Bernhardt, 2004). 즉, 건강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상황분석을 통해 주목표가 되는 목표 공중의 특성을 파악함을 바탕으로 목표공중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주로 의료전달관점(health care deliver perspective)과 건강증진관점(health promotion perspective)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병관, 2007). 먼저 의료전달관점은 대인,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건강관리 전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팀, 건강관리 의사결정, 사회적 지원과 공급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건강증진관점은 건강에 대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공중이 건전한 건강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건강캠페인의 설계, 실행, 평가에 중점을 두는 영역이다.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1990년 후반 언론학을 주축으로 예방의학과 보건학 등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매스미디어나 대인적 접근법을 활용했다. 이 연구는 공중의 건강 태도, 의식, 행동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살펴보는 분야로 학자들이 관심있게 보는 분야라 할 수 있다(이수범, 2003). 헬스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종 암이나 만성질환 같은 개인적인 질병 관리 및 예방, 약물남용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사회적 질병, 흡연 등의 공중보건, 의료관련 정책 및 의료산업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권정현, 2009).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미국 국립암센터는 건강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규범을 바꿀 수 있는 인식, 믿음 체계, 태도에 영향을 주며, 행동변화의 이점을 보여주고, 건강문제나 정책에 관한 특정 입장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헬스커뮤니케이션은 중재적 또는 개입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과 건강정책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정의철, 2013).

헬스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해 건강의제를 만들어가고 이슈화하는 저널리즘의 의제설정 기능과 매스미디어의 주요한 기능인 환경감시, 사회조직간의 상호연결, 사회적 유산의 전승 기능을 수행해왔다. 건강의료 기사의 선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점은 건강의료 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저널리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헬스커뮤니케이션은 일반 대중의 건강의료에 관한 정보욕구를 해소하는 것 외에 국민의 건강평등권 보장의 전제인 국가 보건복지 정책, 건강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사회 구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강유은, 2008).

또한 헬스커뮤니케이션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캠

페인이란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맥락으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복합적인 채널을 사용하여 장기간 동안 광범위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말한다(Fray & Burton, 1990).

19세기에는 증상의 경험적 진단과 치료에 주목했던 반면, 기초과학시대에는 질병 중심의 진단 치료, 20세기에는 환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20세기 말에는 국민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김진순, 1992). 건강증진 개념체계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 다수가 겪고 있는 건강문제, 질병을 극복한 사례, 장수노인의 건강한 삶을 관심있게 본다(남정자, 1999). 또한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과음, 흡연,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 운동부족, 약물남용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유해 환경들이다(박재영, 1998).

이러한 건강의 패러다임 변화는 중앙 일간지의 건강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건강증진 개념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질병 치료 중심의 기사가 많이 다뤄진 반면, 1980년대 건강기사는 건강 및 질병관리가 가장 많고, 보건의료행정, 식품위생 및 영양 순으로 게재됐으며, 건강 및 질병분야에서는 성인건강 및 질병에 관한 것이 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미, 1986).

건강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에 입각한 정교한 메시지의 고안과 매체의 이용이 필요하다(한균태·마정미, 2000).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강 캠페인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이론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건강캠페인의 메시지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건강캠페인이 대부분 위협 소구와 손실을 강조하는 메시지 구성방식만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캠페인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이론적 토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이지현, 2007).

미디어에 대한 건강캠페인 연구로는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의사의 권유가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Cummings, 1979). 이 연구에서는 타인의 행동의도에 대한 지각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변인들과 대화하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실제로 해당 접종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캠페인 개최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선정(보건복지부, 2005)하여 2006년의 경우 25개 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장재인, 2009). 이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건강캠페인은

대내외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한 전략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안의수·이용수, 2007). 반면, 외국의 보건 및 건강증진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어온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이 행동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동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Marshall, Owen, Bauman, 2004). 이와 같이 건강캠페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확산될 경우 예산낭비와 더불어 건강증진사업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안의수·이용수, 2007).

### 제3절 건강보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

건강보도에 대한 연구는 언론학과 보건의로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언론학계의 경우 문제제기는 꾸준히 해왔으나 대부분 학술적이기보다는 언론의 과장, 허위보도, 기자의 비전문성을 비판하는 인상비평에 가까운 연구들이며, 학술적인 실증연구는 실제로 극히 적은 편이다(박정의, 2003).

언론에 보도된 건강정보 관련 선행연구로는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를 분석한 김지미(1986)의 연구, 한국신문에 보도된 보건 관련 기사의 보도성향을 분석한 김실(1994)의 연구, 국내 주요 일간지 건강면에 실린 건강, 의료 기사의 정확성을 분석한 김은정(1999)의 연구,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병원관련 기사를 분석한 윤지희(1999)의 연구, 암 관련 보도의 적절성을 분석한 박정의와 이상규(2002)의 연구, 일간신문 헬스섹션의 건강기사 의제를 분석한 정규숙(2003)의 연구, 황우석 사태 전후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를 연구한 서한기(2007)의 연구, 3개 일간지 대상으로 '병'을 분석한 김용선(2016)의 연구 등이 있다.

먼저 김지미(1986)는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문의 보건 교육적 기능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건강관련 기사 게재 빈도로 신문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교육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문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교육적 기능은 태도 변화의 첫 단계로서 보건지식을 인지하도록 하는 매체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문의 보건 교육적 기능은 단독으로보다는 다른 매체와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보건 교육적 효과가 더욱 상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실(1994)은 동아일보에서 1983년부터 1993년까지 보건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사의 정보원이 정부당국이 39%로 가장 높아 전문가나 학자의 개별 취재보다 대중매체의 건강보도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였음을 밝혀냈다.

김은정(1999)은 부산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실린 건강·의료 보도의 오보여부를 조사하였고, 연구결과 취재원인 의사가 본 건강, 의료보도의 부정확보도가 39%였음을 밝혀냈다.

윤지희(1999)는 조선, 중앙, 한겨레 등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병원 관련 기사 2,35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병원이미지 구축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홍보방법 중 가장 많은 기사로는 특정 진료법 및 최신 치료법, 의료장비 소개에 관한 것임을 밝혀냈다. 또한 3차 종합병원에 대한 기사 비율이 77%로 나타나 병원 관련 기사의 편중도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 기사에 여러 병원이 거론되는 경우 한 기사당 건수를 복수로 채택함에 따라 실제 건수보다 부풀려진 점과 3차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정의와 이상규(2002)는 2001년에 발행된 10대 중앙일간지의 암 관련 보도에 대한 정확성 분석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의학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과 의학보도 전문기자와의 인터뷰와 공중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건강보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규숙(2003)은 일간신문 헬스섹션의 건강기사 의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건강정보가 의료정보의 2배 많게 보도되었고, 건강정보 의제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 의료정보 의제에서는 ‘암’이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밝혀냈다. 반면,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치매, 에이즈 등에 대한 보도 순위는 낮았고, 외부 필자의 대부분이 의사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의 한계로 3개 신문에 한정된 분석결과로 건강기사 의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제 측정 방법에 있어 연구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서한기(2007)는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의 보도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이 무분별하게 긍정적인 추측성 보도로 환상을 심어주어 황우석 사태를 심화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2005년과 2006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3개 일간지의 건강의료면에 실린 전체 기사들 중에서 연구 성과 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내용의 사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에 근거하여 보도된 기사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중앙일보에서 홍보성 기사가 많이 등장했고, 특히 정형외과적 수술기법에 대한 소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언론은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고 기존과 비슷한 보도 방식의 형태로 연구 성과 중심의 보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건강면에 실린 기사들로만 황우석 사태 변화추이를 비교했고, 사

건 1년 만에 그 경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보도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김용선(2016)은 한국언론을 대표하는 3개 일간지에 보도된 ‘병’ 관련 기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의 유형, 병원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사형태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의학정보관련 보도가 많았고, 뼈, 근육, 골격계, 암, 순환기계통 관련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TOP 5에 속하는 대형병원이 주로 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 ‘병원’을 핵심 키워드로 한 만큼 기사만 검색하여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국내 건강보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 등 주요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건강과 병원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건강 관련 기사 분석연구는 김은정(1999)의 연구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서울소재 대형병원이 제공한 건강 관련 기사 혹은 특정병원에 대한 기사 비율이 높았던 반면, 지역 소재 병원에 관련된 기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3차 종합병원이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정보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 만큼 편중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일보, 제주한라병원과 제민일보가 공동으로 건강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를 신문지면을 통해 제공해오고 있다. 이처럼 종합병원과 언론사가 협약을 맺고 건강캠페인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 제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종합병원과 지역일간지가 공동 건강캠페인을 통해 어떤 기사를 제공했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제1절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라일보-제주대학교병원’과 ‘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이 제공하고 있는 건강캠페인 기사이다. 먼저 한라일보는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과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질병 50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학정보를 매주 목요일마다 소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 전문의들의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보도했다. 질병치료는 물론 예방차원의 건강 길잡이 역할이 주된 목적이었다.

2012년에 연재된 ‘헬스케어’는 각종 질병에 관한 정보와 상식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통계청 자료)이면서 3대 성인질병인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다뤘다.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장질환, 방사선 및 항암치료 등 암, 뇌경색 및 뇌출혈 등 뇌질환이 연속 10여회에 걸쳐 연속 보도됐다.

2013년에는 ‘3H(Human, Health, Hospital)’를 주제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아낸다는 취지에서 연령대별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건강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

2014년 ‘메디컬센터’에서는 대학병원에만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공공진료센터 등 소개와 건강캠페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암 치료와 관련된 방사선치료, 인터벤션 영상의학 등이 소개됐다.

2015년 ‘醫(의)+balance’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자료(빅데이터)를 통해 한국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 위주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제민일보는 2013년 제주한라병원과 공동건강기획으로 ‘생명 연장의 섬 로하스 제주프로젝트’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질병이 없다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며, 질병 직전 단계의 비건강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

트였다. 도민에게 올바른 의료지식을 제공하여 각종 질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또한 제주도민이 꼭 알아야 하는 응급의료 정책과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표 1>에서와 같이 한라일보는 제주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건강캠페인’을 기획,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 1회 건강캠페인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민일보는 2013년부터 격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나, 게재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표 1. 지역일간지와 종합병원 간 공동 건강캠페인 현황

구분	제주대학교병원-한라일보	제주한라병원-제민일보
제목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생명연장의 섬’ 로하스 프로젝트
최초 시작	2011년	2013년
게재주기	주 1회	격주



##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일간지와 종합병원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보도한 건강 캠페인 기사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 캠페인 의제가 무엇이고, 어떤 의제가 강조되었으며, 이미지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는지 등 그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가운데 ‘의료정보’의 질병 관련 의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가운데 ‘의료정보’의 비질병 관련 의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3.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가운데 ‘건강정보’ 의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제공 형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제공 여부와 이미지 개수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제공 주체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3.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유형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제3절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기간

제주대학교병원은 한라일보와 협약을 맺고 2011년 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주 1회 지면을 통해 건강캠페인을 다뤄오고 있다. 제주한라병원 또한 제민일보와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신문사가 건강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도된 건강캠페인 기사를 전수 조사하였다.

한라일보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지면을 통해 보도된 248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민일보 또한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년 동안 다뤄진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자료수집 과정에서 제주한라병원과 제민일보 간의 협약 문제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건강캠페인 기사를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분석대상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3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전체 5년분의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85건의 건강캠페인 기사가 확보되었다.

### 2. 분석방법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표면적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및 양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말한다(Berelson, 1952). 이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기술, 메시지 특성 분석, 미디어 내용과 현실세계의 비교, 사회 특정집단의 이미지 평가 등으로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장점 중 하나는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대상이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Roger & Wimmer,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캠페인 보도의 내용적 특징 즉, 건강캠페인 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내 종합병원과 지역일간지가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들을 중요하게 결정,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3. 분석유목

건강캠페인 의제 유목은 건강 관련 선행연구(김용선, 2016; 정규숙, 2003)에서 사용되었던 분석유목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 1) 건강캠페인 의제

건강캠페인 의제를 분류하기 위한 분석유목은 <표 2>와 같다. 의료정보는 암 등 각종 개인적인 질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말하며, 건강정보는 의료정보를 제외한 운동, 생활습관, 식이요법, 피부관리 등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정보들을 말한다. 기타는 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사기획에 관련된 프롤로그, 에필로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2. 건강캠페인 의제

구분	분석유목
의료정보	① 신체적 질병의 증상, 진단, 치료,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보 (암, 고혈압 등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눈 및 귀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아토피 등 피부질환, 내분비, 류마티스, 면역 등의 내과계 질환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발병하는 특정질환) ② 각 질병과 관련된 최신 연구결과, 새로운 시술법, 치료법, 검사법, 진단법, 실태조사, 유명병원 및 명의 등에 관한 정보 ③ 의학, 한의학 등의 학문 분야 및 새로운 영역에 관련된 정보
건강정보	① 의료정보를 제외한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모든 정보 ② 정신건강, 건강습관, 운동, 비만, 몸에 좋은 음식(식품), 보완대체 의학(요법), 생활환경, 의료제도, 시사이슈, 장수/노화, 환자 모임, 의료계 사람들
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의 세부의제를 분류하기 위한 분석유목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의료정보’ 중 질병에 관한 분석유목인 <표 3>에서는 각각의 질병들을 하나의 의제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암은 종류별로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개별 의제로 분류하되, 결과분석에서는 하나의 의제로 처리했다.

한편, 유사질병이지만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의료정보’로 처리하고, 건강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건강정보’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부인과 질환은 비뇨/생식기계로 분류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된 의제는 건강과 관련된 건강정보 의제로 분류했다. 이외에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은 ‘의료정보’로 분류하고, 피부관리 등 미용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정보’로 처리했다. 충치는 치과계로 구분하고, 치아관리는 건강습관 관리로 구분해 건강정보로 처리했다.

표 3. ‘의료정보’ 중 질병 의제 유형

구분	분석유목
암	유방암,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백혈병 등
순환기계	뇌졸중(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혈압, 정맥류/동맥류 등
뇌신경계	신경계질환, 뇌질환, 편두통 등
호흡기계	폐렴, 천식, 감기 등
소화기계	위, 대장, 간질환 등
근골격계	골절, 척추측만증, 관절염, 골다공증 등
안/이비인후과	코골이, 비염, 난청, 축농증, 편도, 녹내장, 백내장, 라식 등
비뇨기계/생식기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요로결석, 방광염, 부인과질환 등
피부	아토피, 무좀, 알러지, 대상포진, 습진 등
치과	충치, 임플란트 등
내과계	내분비, 류마티스, 면역, 신장 등
외과	맹장염, 치질, 탈장 등
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의료정보 중 질병이 아닌 의제의 특징은 김용선(2016)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분석유목을 활용하였다. ‘국내 최초’, ‘최신’, ‘가장 먼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장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경우 ‘의료기기’로 처리하고, 전문 수술이나 시술 소개, 병원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병원소개’로 분류하였다.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제주지역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에 관한 코호트 연구는 ‘의료과학’으로 처리하고, 의료봉사 혹은 학술대회, 건강강좌 등은 ‘의료행사’로 구분하였다.

비질병의제 유형 가운데 병원을 소개하는 분석유목 사례로는 최신 영상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몸속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카테터 등의 의료기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한 소개를 들 수 있다. 또한 방사선치료법 중 하나인 IMRT라고 불리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는 다학제협진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제주대학교병원이 도내 최초로 국립장기이식센터로부터 간장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되고, 실제 간이식을 시행한 내용과 공공보건의료사업실 · 제주지역암센터 · 장기이식센터 · 제주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희귀질환거점센터 소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표 4. ‘의료정보’ 중 비질병 의제 유형

구분	분석유목
의료기기	의료장비 우수성(국내 최초, 최신, 가장 먼저 등의 표현 사용) 등
병원소개	전문수술, 시술 소개, 의료실적, 정책, 수상 소개, 진료개시 등
의료과학	논문발표, 질병분석, 코호트 연구 등
의료행사	의료봉사, 학술대회, 기념식, 심포지엄, 건강강좌 등
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건강정보의 특징 관련은 정규숙(2003)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분석유목을 사용하였다. 건강정보 의제는 <표 5>와 같으며, 정신건강,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미용, 임신/출산/육아,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 기타 등 6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정신건강’ 범주에는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중독증상 등의 세부 의제가 포함됐다.<sup>2)</sup>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좋은 습관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다룬 것으로 금연/흡연, 치아관리, 손 위생,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다이어트,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건강검진 등이 포함됐다.<sup>3)</sup> 또한 ‘식이요법’은 병원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민간요법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식습관 등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영양소 등에 관한 것으로 분류했다.

미용관련 의제로는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시술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sup>4)</sup> ‘임신/출산/육아’ 범주에는 노산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 난임 등과 같은 내용, 육아와 관련하여 개학 전 준비, 방학 중 어린이 건강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사이슈/시존정보/생활환경’에 관한 범주에는 메르스, SARS와 같은 유행감염병과 계절별로 유행하는 독감, 쯤쯤가무시증<sup>5)</sup> 등과 같은 계절정보와 컴퓨터 전자파 같은 생활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제도’에 관한 범주에는 건강보험, 의료윤리, 의료정책에 관한 내용 즉, 국가정책에 따른 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 2) 세부의제 중 치매인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환자가 특별한 운동 마비 증상이 없는데도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 하고 예전과 다르게 고집이 세지면서 심한 욕을 하는 경우 신경과를 찾아 검진 받는 것을 권장했다. 물론 인지기능에 중요한 뇌 부위에 뇌졸중이 생기면 갑자기 치매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진료가 시급하다(한라일보, 2011. 9. 8).
- 3) 예를 들어, 여성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는 시기인 갱년기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함께 식생활, 운동, 체중관리를 주축으로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식생활에서는 채식, 정제되지 않은 곡물 및 생선류의 섭취를 통한 저칼로리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 섭취, 저지방, 저염식을 권한다. 운동은 최고 운동능력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각종 암의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로 검진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한라일보, 2012. 1. 13).
- 4) 예를 들어, 성형에 대해 잘생긴 외모만이 성공의 전제조건은 아니겠지만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면 대인관계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돼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편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수술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한라일보, 2012. 1. 6).
- 5)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열성질환인 쯤쯤가무시증은 쯤쯤가무시균에 의해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들쥐같은 설치류가 옮긴 진드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 때 물린 상처를 통해 균이 침투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가을철 성묘,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할 때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는 일은 삼가야 하다고 한다. 또한 벌초 등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야 하는 경우 긴팔, 긴바지 등 피부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옷을 입는게 좋다고 덧붙였다(제민일보, 2015. 9. 14).

표 5. '건강정보' 세부의제 유형

구분	분석유목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증, 치매, 정신질환, 기타(성격, 불안, 피로, 중독, 웃음) 등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금연/흡연, 음주, 수면, 약, 치아 관리, 변비, 손 위생, 건강검진, 건강기구, 운동, 스포츠, 비만, 다이어트, 식이요법 등
미용	성형수술, 피부미용, 치아교정/미백, 탈모, 외모/인상, 라식 등
임신/출산/육아	결혼, 임신, 분만, 피임, 폐경, 불임, 육아, 모유수유 등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의료제도	유행감염병, 아동학대, 시사이슈, 시즌정보(계절정보), 컴퓨터/전자파, 의료제도(건강보험,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
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 2)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건강 관련 기사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다루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삽화, 정보그래픽 등의 추가정보를 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 예시는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정보 습득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 기억되어 독자의 이슈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우·유홍식, 2018). 이처럼 이미지 제공은 기사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병원은 직접 촬영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이미지 제공 여부를 파악하고,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이미지인지 살펴보았다.

질병/영상 사진은 X-RAY 검사 등 질병에 대한 사진이며, 검진/검사/진료상담 사진은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담하는 사진이다. 치료/시술/수술사진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행해지는 넓은 의미의 치료법을 말한다. 의사사진은 건강캠페인 기사 작성에 도움을 준 전문의의 프로필 사진이며, 병원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건강캠페인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래픽이미지는 일러스트로 처리한 이미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참고사진

은 질병에 관련된 연출사진 또는 영화장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유명인 사진 등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영국의 마가릿 대처 또한 치매로 사망했는데, 관련 질병을 소개할 때 이들의 사진이 사용되었다. 또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유명 연예인 사진을 신문 상단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화 관련 사진으로 주인공 알파치노가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영화 ‘인썸니아’의 한 장면을 불면증에 대한 참고사진으로 쓰기도 했다. 또한 백혈병에 대해 소아백혈병에 걸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 성공한 변호사의 삶을 포기하는 엄마의 얘기를 다룬 영화 ‘마이시스터즈 키퍼’의 한 장면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스런 모습을 연출하는 연출사진도 포함돼 독자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표 6. 건강캠페인 관련 이미지 제공

구분	분석유목
이미지 제공 주체	① 직접제공 ② 언론사 제공 ③ 기타
이미지 개수	몇 개
이미지 유형	① 질병/영상 사진 ② 검진/검사/진찰/진료상담 사진 ③ 치료/시술/수술 사진 ④ 의사사진 ⑤ 그래픽이미지 ⑥ 참고사진 ⑦ 기타

#### 4. 코딩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건강캠페인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코딩을 실시했다.

첫째, 기사의 의제는 일차적으로 제목, 부제목, 컷 제목 등 그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제목이 다루는 의제와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문 내용도 함께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제목은 ‘알레르기’지만, 이에 뒤따르는 부제목이 ‘기침 오래하고 가슴에서 휘파람 소리가 난다면...’, ‘집먼지 진드기 주원인 물질, 영유아 천식환자 진



단 곤란'인 경우, 본문에 알레르기과 기관지 천식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언급되어 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에 따라 코딩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 기사는 주된 질환을 기관지 천식으로 보고 호흡기 질환으로 코딩했다.

둘째, 한 기사에서 두 개 이상의 의제가 함께 다뤄진 경우에는 제목과 부제목, 리드, 본문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제 하나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치아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악동염은 윗턱 양측 눈 아래에 상악동이라 일컫는 동굴 형태의 빈 공간에 치과 질환으로 인해 점막에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로 주로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함께 수술하는 협진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치과로 코딩했다. 또한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과거 머리를 열고 뇌하수체에 도달하는 방법은 수술 후 사망률이 1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코를 통해 뇌를 건드리지 않고 도달하는 방법이 더 쉽고 안전하므로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두 개과가 협진 수술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중이 높은 뇌신경계로 의제를 처리했다.

셋째, 소아 관련 내용은 의제를 따로 소아계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질병의제에 포함시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변을 자주봐요'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린이 사시, 미숙아망막병증은 안과, 소아간질과 어린이 뇌경색(모야모야병)은 뇌신경계, 소아골절-성장판 손상은 근골격계, 소아 부비동염은 이비인후과로 처리했다.

넷째, 프로포폴 중독과 같이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사회 이슈가 된 경우에는 시사이슈로 구분할지, 아니면 중독으로 봐서 의료정보가 아닌 건강정보 의제 중 정신건강으로 처리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비중이 중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해서 후자로 처리했다.

## 5. 신뢰도 검증

분석대상 기사의 신뢰도 검증에는 언론학 전공자 1인의 코더가 참여했고, 주제별 분석유목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교육 후 분석유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각 분석유목에 대한 코더 간의 신뢰도 계수는 홀스티(Holsti, 1969)<sup>6)</sup>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표 7>에서와 같이 건강캠페인 의제 0.88, 건강정보

의제 0.92, 이미지 제공 주체 0.96, 이미지 유형 0.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더 간에 높은 일치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목에 의한 내용분석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분석유목별 신뢰도 계수

분석유목	신뢰도 계수
건강캠페인 의제 유형	0.88
건강정보 의제 유형	0.92
이미지 제공 주체	0.96
이미지 유형	0.88

6) 신뢰도의 계수 =  $2M/(N1+N2)$ , M: 2명의 코더간의 일치한 코딩 건수, N1: 코더 1명의 코딩건수, N2: 코더 2명의 코딩건수

## IV. 연구결과

### 제1절 연구결과

#### 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의제

##### (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표 8>에서와 같이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료 정보가 234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정보(91건, 27.3%), 기타(8건, 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사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p > .05$ ).

표 8.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의료정보	174 70.2%	60 70.6%	234 70.3%
건강정보	68 27.4%	23 27.1%	91 27.3%
기타	6 2.4%	2 2.4%	8 2.4%
전체	248 100.0%	85 100.0%	333 100.0%

$\chi^2 = .006$ ,  $df = 2$ ,  $p > .05$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의료정보가 174건(7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정보(68건, 27.4%), 기타(6건, 2.4%)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에서도 의료정보가 60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정보(23건, 27.1%), 기

타(2건, 2.4%)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처럼 건강캠페인 기사는 주로 의료정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는 한라일보의 경우, 2011년 프롤로그, 에필로그, 2012년 에필로그, 2013년 프롤로그, 에필로그, 2014년 에필로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민일보에서는 2014년 들어 처음 보도된 ‘갑오년 새해맞이 진료과장 좌담’에 관한 내용과 2019년 ‘권역희귀질환거점센터’ 소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 (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질병 의제

<표 9>에서와 같이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질병의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암이 36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골격계(35건, 16.1%), 안/이비인후과계(27건, 12.4%), 뇌신경계(23건, 10.6%), 내분비/류마티스/면역/신장계(21건, 9.7%), 순환기계(18건, 8.3%), 소화기계(14건, 6.5%), 호흡기계(11건, 5.1%), 비뇨기계/생식기계(10건, 4.6%), 치과계(7건, 3.2%), 피부계(6건, 2.8%), 기타(6건, 2.3%), 외과계(4건,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순위와 같았다. 신문사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암과 근골격계가 각각 27건(1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이비인후과계(22건, 13.8%), 뇌신경계(17건, 10.7%), 순환기계, 내분비/류마티스/면역/신장계(14건, 8.8%), 소화기계(10건, 6.3%), 호흡기계(8건, 5.0%), 비뇨기계/생식기계(7건, 4.4%), 피부계(4건, 2.5%), 외과계(2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에서는 암이 9건(1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골격계(8건, 13.8%), 내분비/류마티스/면역/신장(7건, 12.1%), 뇌신경계(6건, 10.3%), 안/이비인후과계와 기타(각각 5건, 8.6%), 호흡기계와 비뇨기/생식기계(각각 3건, 5.2%), 피부와 외과계(각각 2건, 3.4%)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기타로 분류된 기사 가운데 4건은 분석유목에서 소아 관련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지 않고 관련 질병군에 포함시켰고, 관련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했다. 한라일보에서는 기타는 없었으며, 제민일보에서는 척추수술 후 통증 증후군, 소아열성경련, 소아 저신장증, 소아 장바이러스 감염증, 소아감염 질환인 수족구병, 수두, 볼거리 관련 내용이 기타에 포함되었다.

표 9.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질병 의제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암	27 17.0%	9 15.5%	36 16.6%
순환기계	14 8.8%	4 6.9%	18 8.3%
뇌신경계	17 10.7%	6 10.3%	23 10.6%
호흡기계	8 5.0%	3 5.2%	11 5.1%
소화기계	10 6.3%	4 6.9%	14 6.5%
근골격계	27 17.0%	8 13.8%	35 16.1%
안/이비인후과계	22 13.8%	5 8.6%	27 12.4%
비뇨기계/생식기계	7 4.4%	3 5.2%	10 4.6%
피부계	4 2.5%	2 3.4%	6 2.8%
치과계	7 4.4%	0 0.0%	7 3.2%
내분비/류마티스/면역/ 신장계	14 8.8%	7 12.1%	21 9.7%
외과계	2 1.3%	2 3.4%	4 1.8%
기타	0 0.0%	5 8.6%	6 2.3%
전체	159 100.0%	58 100.0%	217 100.0%

$\chi^2 = 19.492$ ,  $df = 12$ ,  $p > .05$

구체적으로 한라일보에서 다룬 암은 폐암, 자궁암, 갑상선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혈액암, 전립선암, 구강암, 방광암, 담낭암 12가지 세부암에 관한 것이었

고, 제민일보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전립선암이었다. 두 병원 모두 암과 관련된 내용과 마음으로 극복하는 질병 암 등 많은 내용을 다루었다.7)

### (3)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비질병 의제

<표 10>에서 보듯이 신문사별 의료정보 의제 중 비질병 유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소개가 13건(7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과학(2건, 11.8%), 의료기기와 기타(각각 1건, 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표 10.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비질병 의제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의료기기	1 6.7%	0 0.0%	1 5.9%
병원소개	11 73.3%	2 100.0%	13 76.5%
의료과학	2 13.3%	0 0.0%	2 11.8
기타	1 6.7%	0 0.0%	1 5.9%
전체	15 100.0%	2 100.0%	17 100.0%

$\chi^2 = .697, df = 3, p > .05$

7) 국가적으로 예방 및 치료에 중점을 둔 6대 암 10대 질환을 포함하고, 특히 한라일보의 경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한 질병 중 다빈도 질병(만성질환 및 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진료과목별로 분류하면 신경과인 경우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신경외과에서는 만성 뇌경막하출혈과 척추협착증이 있다. 고관절질환을 비롯해 슬관절 및 퇴행성관절염과 수구관증후군, 오십견 및 견관절질환, 염좌 및 족부질환 등 정형외과 질환도 빠지지 않는다. 내과에서는 고혈압을 포함해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갑상선질환 등이 망라됐다. 코골이, 만성중이염, 음성후두질환 등 이비인후과 질환과 대상포진, 건선 등 피부과 질환도 빼놓을 수 없었다.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병원소개가 11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과학(2건, 13.3%), 의료기기와 기타 (각각1건, 6.7%)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의 경우에는 병원소개만 2건(100.0%) 확인되었다. 기타에는 제주 지역 수혈업무의 특수성 관련 내용, 기상악화 및 야간 대형사고시 다량의 혈액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가 포함되었다.

#### (4)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건강정보 의제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의제 중 건강정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정보가 30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21건, 23.1%), 임신/출산/육아(20건, 22.0%), 정신건강(14건, 15.4%), 미용(5건, 5.5%), 기타(1건, 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사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표 1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유형 중 건강정보 의제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정신건강	12 17.6%	2 8.7%	14 15.4%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18 26.5%	3 13.0%	21 23.1%
미용	4 5.9%	1 4.3%	5 5.5%
임신/출산/육아	15 22.1%	5 21.7%	20 22.0%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	18 26.5%	12 52.2%	30 33.0%
기타	1 1.5%	0 0.0%	1 1.1%
전체	68 100.0%	23 100.0%	91 100.0%

$\chi^2 = 6.095$ ,  $df = 5$ ,  $p > .05$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시사이슈/시즌정보와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가 각각 18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신/출산/육아(15건, 22.1%), 정신건강(12건, 17.6%), 미용(4건, 5.9%), 기타(1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에서는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이 12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신/출산/육아(5건, 21.7%),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3건, 13.0%), 정신건강(2건, 8.7%), 미용(1건, 4.3%)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기타 항목에는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는 일인 만큼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포함되었다.

시사이슈/계절질환에 대한 기사로 먼저 계절질환으로는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모두 월별, 혹은 계절별로 어떤 질환이 주로 등장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다루었다.<sup>8)</sup> 시사이슈로는 한라일보가 결혼이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고위험 임신, 2014년 국제적 이슈였던 에볼라 아웃브레이크 등을 다루었으며, 제민일보는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순위 상으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정신건강 의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건강의제이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증과 우울조울병 등이 있다. 한라일보는 인지장애, 정신분열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성인 ADHD, 치매, 우울증, 양극성장애,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관리 등 비교적 다양한 정신질환을 다루었다. 반면, 제민일보는 불면증, 건강염려증 2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8) 한라일보가 3월에 다룬 알레르기에 관한 기사로 삼나무의 꽃가루는 제주지역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항원으로 가정에서 효과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어 4월에는 제주지역 특산물인 고사리 채취를 위해 숲이나 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뱀이나 벌에 쏘이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것, 7월에는 여름철 응급질환과 관련하여 음식물 섭취, 물놀이 사고 주의에 관한 내용이었다. 겨울철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독감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여러 기관의 참여로 감시가 이뤄지는 만큼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민일보도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여름철 건강관리, 여름철 수인성 질환, 가을 전염병, 가을철 열성질환, 가을철 진드기 교상, 독감과 감기, 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관상동맥질환과 예방 등 대부분 계절과 관련된 예방 관리 차원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 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 (1)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여부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제공된 경우가 319건(95.8%)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14건(4.2%)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가 240건(96.8%),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8건(3.2%)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공한 경우가 79건(92.9%),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6건(7.1%)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여부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있음	240 96.8%	79 92.9%	319 95.8%
없음	8 3.2%	6 7.1%	14 4.2%
전체	248 100.0%	85 100.0%	333 100.0%

$$\chi^2 = 2.309, df = 1, p > .05$$

### (2)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개수

신문사별 이미지 제공 개수를 분석한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2개가 13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개(90건, 28.2%), 1개(81건, 25.4%), 4개(11건, 3.4%), 5개(1건, 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사 간에 차이가 없었다( $p > .05$ ).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2개가 1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1개(69건, 28.8%), 3개(60건, 25.0%), 4개(10건, 4.2%), 5개(1건, 0.4%)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는 2개가 36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3개(30건, 38.0%), 1개(12건, 15.2%), 4개(1건, 1.3%), 5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문사별로 평균 몇 개의 이미지를 제공했는지 살펴본 결과, 한라일보 2.06, 제민일보 2.25로 평균 2개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개수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1개	69	12	81
	28.8%	15.2%	25.4%
2개	100	36	136
	41.7%	45.6%	42.6%
3개	60	30	90
	25.0%	38.0%	28.2%
4개	10	1	11
	4.2%	1.3%	3.4%
5개	1	0	1
	0.4%	0.0%	0.3%
전체	240	79	319
	100.0%	100.0%	100.0%

$\chi^2 = 9.842$ ,  $df = 4$ ,  $p < .05$

### (3)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주체

<표 14>에서와 같이 신문사별 이미지 제공 주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제공한 경우가 531건(7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사 제공(140건, 20.8%), 기타(1건, 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도 병원제공(396건, 80.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사 제공(97건, 19.6%), 기타(1건, 0.2%)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도 병원제공이 135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사 제공(43건, 24.2%)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기사는 유방암 바로 알기에 관련된 서귀포보건소 주최 핑크리본 캠페인 관련 보도로, 이미지 제공 주체는 서귀포보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주체 (다중응답)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병원제공	396 80.2%	135 75.8%	531 79.0%
언론사 제공	97 19.6%	43 24.2%	140 20.8%
기타	1 0.2%	0 0.0%	1 0.1%
전체	494 100.0%	178 100.0%	672 100.0%

#### (4)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유형

신문사별 이미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15>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의사사진이 172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영상사진(145건, 21.6%), 참고사진(133건, 19.8%), 검진/검사/진료사진(92건, 13.7%), 그래픽이미지(69건, 10.3%), 치료/시술/수술장면(60건, 8.9%), 기타(1건, 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라일보에서는 질병/영상사진 115건(23.3%), 이어 참고사진(109건, 22.1%), 의사사진(104건, 21.1%), 검진/검사/진료사진(72건, 14.6%), 치료/시술/수술장면(50건, 10.1%), 그래픽이미지(43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에서는 의사사진 68건(38.2%)로 가장 많았고, 이

어 질병/영상사진(30건, 16.9%), 그래픽이미지(26건, 14.6%), 참고사진(24건, 13.5%), 검진/검사/진료사진(20건, 11.2%), 치료/시술/수술장면(10건, 5.6%), 기타(0건, 0%)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유형 (다중응답)

구분	신문사		전체
	한라일보	제민일보	
질병/영상사진	115 23.3%	30 16.9%	145 21.6%
검진/검사/진료사진	72 14.6%	20 11.2%	92 13.7%
치료/시술/수술장면	50 10.1%	10 5.6%	60 8.9%
의사사진	104 21.1%	68 38.2%	172 25.6%
그래픽이미지	43 8.7%	26 14.6%	69 10.3%
참고사진	109 22.1%	24 13.5%	133 19.8%
기타	1 0.2%	0 0.0%	1 0.1%
전체	494 100.0%	178 100.0%	672 100.0%

## V. 결론 및 제언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역일간지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공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의료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한 건강캠페인 기사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한라일보와 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건강캠페인 기사를 게재했으며, 한라병원은 제민일보와 2013년부터 게재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두 신문사가 건강캠페인을 시작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보도된 건강캠페인 기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총 333개의 건강캠페인 기사에 대해 건강캠페인 의제 특성과 이미지 제공 형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캠페인 의제를 분석한 결과로 첫째, 건강캠페인 의제는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모두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다룬 의료정보가 건강한 삶과 관련된 건강정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간지의 건강 기사가 주로 건강의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정규숙, 2003)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의료정보 의제 중 질병에 대한 분석유목 결과 전체적으로는 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골격계 질환, 안이비인후과, 뇌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도 암과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다빈도 질병에 암, 뼈, 근육, 골격계가 많았다는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그 외 질병의 경우에도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사망 주요 질병의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료정보 의제 중 비질병유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소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과학, 의료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문수술, 시술을 소개하고 병원정책 및 실적을 다룬 병원 홍보성 기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술 또는 시술 소개는 왜

곡된 의료이용 형태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캠페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공공의료적인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건강캠페인 유형 중 건강정보 의제 유형의 결과 전체적으로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정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임신/출산/육아, 정신건강, 미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도 한라일보, 제민일보 모두에서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유목을 살펴보면, 계절질환에 관한 내용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사이슈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고령화 사회의 최대 이슈인 치매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들의 경우, 중앙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를 소홀히 다룰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건강캠페인 의제는 건강을 둘러싼 사회제도와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개발하여 공중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헬스저널리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로 첫째, 이미지의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건강캠페인 기사가 대부분 의학 관련 정보들을 다루다 보니,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본다.

둘째, 이미지는 2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문사별로도 평균 2개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문사별 건강캠페인 기사의 이미지 제공 주체는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두 신문사 모두 병원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미지 유형은 전체적으로 의사사진, 질병/영상사진, 참고사진, 검진/검사/진료사진, 그래픽 이미지, 치료/시술/수술장면 순으로 많았고, 한라일보에서는 질병/영상사진이 많았으며, 제민일보에서는 의사사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건강 관련 기사의 경우,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다루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간혹 기사에 대한 독

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상세한 수술부위를 보여주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는 등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진은 독자들로 하여금 혐오감 혹은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도과정에서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제주지역의 종합병원과 지역일간지가 공동으로 기획한 건강캠페인은 올바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건강캠페인은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의가 직접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캠페인 기사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일간지는 건강 관련 기사를 제공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역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는지와 같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보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질병을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1년 한라일보가 기획한 ‘제주, 제주인의 질병 50선’은 의미가 있다. 제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전문의들의 설명을 곁들여 상세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기사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본다.

둘째, 질병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종합적인 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건강, 예방 기사보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건강캠페인 기사가 특정 질병과 관련된 치료방안에 대한 설명 못지않게 질병 예방 차원의 건강 길잡이 역할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헬스저널리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특종에 주목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언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요인이 높은 질병(전염성/감염성) 위주로 데스크와 핫

라인을 확보하고 사실을 담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강정보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 향상 도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종합병원과 언론매체가 협약을 맺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 기사를 제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캠페인 기사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건강보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다룬 건강 기사 분석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과 달리 지역일간지에서 보도된 건강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 관련 보도가 지향해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신문지면에서 보도된 건강캠페인 기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면을 통해 보도된 건강 캠페인 기사가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어떤 정보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헬스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올바른 건강상식과 의료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향후 헬스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수용자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건강캠페인 관련 연구가 보다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남준 (1998). 의료건강보도의 문제점. <저널리즘 비평>, 25, 42-47.
- 강유은 (2008). <국내 일간에 게재된 '대체의학' 관련 기사 연구>. 조선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재인 (2009). <건강보도와 건강캠페인이 질병에 대한 지각과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우룡 (1992). <커뮤니케이션 기본이론>. 서울: 나남.
- 김우룡 (2001). <병원취재와 건강의료 관련보도>. 김지홍, 한국저널리즘의 쟁점, 법문사, 494-495.
- 김은아·반현 (2012).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언론의 위해 식품 보도 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7호, 234-256.
- 김지미 (1986).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맥스웰 맥콤스, 에드나 아인시델, 데이비드 워버. (1995). <현대사회와 여론>. 한균태 옮김. 서울: 한올아카데미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의약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2권 2호, 310-340.
- 박성희 (2006). 위험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5호, 181-210.
- 박재영 (1998). 의료보도: 최근 의료관련 보도를 보고. <신문과 방송>, 331, 69-70
- 박정의 (2003). 의학보도가 공중의 인지, 감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 박희호 (1999). <신문의 보건기사 보도에 관한 내용분석-1995,1996,1997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한기 (2007). <황우석 사태 이후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스위스 세계보건기구. (1998). <건강증진용어해설집>. 김공현, 김광기 공역. 서울:

- 보건복지부. 원전: Health Promotion Glossary.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nd ed. Don Nutbeam Ed., Comp. 1998.
- 안익수·이용수 (2007). 지역사회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매체-캠페인이 걷기관련 인식과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24권 4호, 99-114.
- 오대영·최민음 (2016). 한국 일간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 <언론과학연구>, 16권 2호, 103.
- 이귀옥·박조원 (2006). 식품위해(foodrisk) 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김치 파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5호, 260-305.
- 이동근 (2009). <오마이뉴스>와 전현직 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의 프레임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7권 2호, 5-29.
- 이선영 (2011). 30대 여성과 4,50대 중장년 여성의 유방암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암 예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417-455.
- 이은우·유홍식 (2018). 건강뉴스보도에서 텍스트 기사의 획득, 손실 프레임과 시각적 이미지 예시가 수용자의 이슈지각, 예방행위의도, 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8권 2호, 150.
- 이준웅 (2001). 미디어 이론으로 본 보도현장(1)-의제설정 이론. <신문과 방송>, 370호, 40-45.
- 정의철 (2008). 에이즈 뉴스 프레임 분석: 비판적 헬스저널리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23-248.
- 정의철 (2013). <헬스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상윤 (2011. 09. 08). 치매.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15407600373921228&spage=2>
- 조상윤 (2015. 04. 24). 프로포폴 중독.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29801200497625293>
- 조상윤 (2012. 01. 13). 여성갱년기 건강관리.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26380400385457241>

- 조상윤 (2012. 01. 06). 얼굴 가꾸면 또다른 보배.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25775600384867241>
- 조흥준 (1999). 의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훈저널 39(1), 216-219.
- 최민음·서필교·최명일·백혜진 (2014). 확장된 기술수용모형(TAM)을 적용한 TV 건강 프로그램 시청의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8권 6호, 362-389.
- 통계청 (2015. 3. 19). 2014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01). <공중보건과 의학보도: 의학보도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홍수원 (2000). 보건과 의료관련 보도의 함정. <신문과 방송>. 356, 160-163.
- Baran, S. J. and D. K. Davis. 2000. *Mass Communication Theory: Foundation, Ferment, and Future*. 2nd ed. USA:
- Bernhardt, J. M. (2004). Communication at the core of effective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 2051-2053.
- Carter, Laura. (2002). "Medicine in the Media: Communicating Health Information to the Public". USA Today Magazine. 131(2688): 60-62.
- Chyi, H. I., & McCombs, M. (2004). Media salience and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mbine school shooting.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 Coleman, R, Thorson, E., & Wilkins, L. (2011). Testing the effect of framing and sourcing in health news storie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9), 941-954.
- Corcoran, N. (2007). Communicating Health Strategy of Health Promotion. 정의철·이의복 역(2009). <헬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 아카데미.
- Hallin, D. C., & Briggs, C. I. (2015). Transcending the medical/media opposition in research on news coverage of health and medicine. *Media, Culture & Society*, 37(1), 85-100.
- Jones, K. O., Denham, B. F., & Springston, J. K. (2006). Effects of mass

-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breast cancer screening: Advancing agenda-setting theory in health context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4(1), 94-113.
- Lippmann, Walter.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Macmillan.
- Littlejohn, S.W. (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5th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커뮤니케이션 이론>. 김홍규 역 (1996). 서울:나남출판.
- Marshall A., Owen N., Bauman A. Mediated approaches for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L update of the evinee on mass media, print, telephone and website delivery interventions. *J Sci Med Sport* 7 2004: (1 Suppl) : 74-80.
- McCombs, Maxwell. (1997). "Building Consensus : The news media's agenda-setting roles". *Political Communication*. 14(4): 433-443.
- McCombs, M. E., & Ghanem, S. I. (2007). 의제설정과 프레임의 접목. 반현·노보경(편역), <프레이밍과 공공생활> (126-146p).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1).
- O'Keefe, M.T. (1970). "The Mass Media as Source of Medical Information for Doctors". *Journalism Quarterly*(Spring), 95-100.
- Semetko, H. A., Blumler, J. G., & Weaver, D. H. (1991). *The formation of campaign agendas: A comparative analysis of party and media roles in recent American and British elec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everin, Tankard. (1999).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개론』. 김홍규, 박천일, 강형철, 안민호 공역. 서울 : 나남출판
- Tanner, A. H. (2004). Agenda building, source selection, and health news at local television stations. *Science communication*, 25(4), 350-363.
- Wanta, W., Golan, G., & Lee, C. (2004). Agenda setting and international news: Media influence on public perceptions of foreign nation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2), 364-377.

Weaver, Dh. (2007). Thoughts on agenda setting, framing and pri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 142-147.

Wiess, C. H. (1974). "What America's leaders read". *Public Opinion*.  
38:1-21. 조흥준. 의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훈저널>, 39(1).  
213-223.

Abstract

## **An Analysis of Health Campaign Contents Reported in Local Daily Newspapers**

Yang, Na-Mi

Department of Journalism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country's entry into an aged society,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income growth,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medical and health care among modern people. Moreover, their awareness of health has also changed into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health in terms of prevention of illness,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In this light, the mass media are providing various and in-depth information through health-related sections and programs.

Meanwhile, in Jeju, general hospitals and local dailies have concluded an agreement to conduct health campaigns through newspapers to provide correct health common sense and medical knowledge to support local residents' healthy lives.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campaigns through a comparison of related articles in the Hallailbo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the Jemin Daily with Cheju Halla General Hospital. The analysis period was five years from the point in time when the two newspapers started the health campaigns, and an analysis of the health campaign agendas and image provision type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333 articles about the health campaigns.

First, the analysis of the health campaign agendas in the newspapers found that both the Hallailbo and the Jemin Daily provided more ‘medical information’ about diseases compared to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a healthier lif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diseases confirmed that the two newspapers dealt mostly with cancers, followed by musculoskeletal diseases, otolaryngology, cerebral nervous system, endocrine system, circulatory system, digestive system, respiratory system and urinary system disease.

The analysis results of non-disease items among the medical information agendas showed that an introduction to hospitals constituted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medical science and medical devices. Looking at the results by newspaper, articles on hospital promotion which introduce specialized operations and surgical procedures, and deal with hospital policy and performance made up the largest number. In relation to the health information agendas, current issues/seasonal information/life information made up the highest number, followed by health habits/management/exercise/obesity/diet, pregnancy/birth/childcare, mental health, and finally beauty. In addition, both newspapers were found to provide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about current issues/seasonal information/living environment.

Second, in relation to the image provision of health campaign articles, images were used in most of the articles. It is believed that the images are used as devices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the medical information dealt with in articles about the health campaigns. Both newspapers used an average of two images per article, which were mainly provided by hospitals. The types of images provided were pictures of doctors, disease/image pictures, reference picture, health screening/checkup/medical treatment pictures, graphic images, and remedy/procedure/surgery scenes in the order of the frequency of use. To be more specific, disease/image pictures were used most in the Hallailbo, whereas pictures of doctors were used most in the Jemin Daily.

Overall,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in



which general hospitals and news agencies enter into an agreement to jointly plan and provide articles about health campaigns.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articles about health campaigns provided by local daily newspapers in a situation where an analysis of health campaign articles is mainly conducted on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a future direction for health reports based on the findings of research.

Key words: Health campaign, Health report, Health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 부록 1. 코딩지

###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건강캠페인 내용분석 연구> 코딩지

#### 1. 건강캠페인 의제

- ① 의료정보 ② 건강정보 ③ 기타

#### 2. 의료정보의제 중 질병 의제

- ① 암 ② 순환기계 ③ 뇌신경계 ④ 호흡기계 ⑤ 소화기계  
⑥ 근골격계 ⑦ 안/이비인후과 ⑧ 비뇨기계/생식기 ⑨ 피부 ⑩ 치과  
⑪ 내분비, 류마티스, 면역, 신장 ⑫ 외과 ⑬ 기타

#### 3. 의료정보 중 비질병 의제

- ① 의료기기 ② 병원소개 ③ 의료과학 ④ 의료행사 ⑤ 기타

#### 4. 건강정보 의제

- ① 정신건강 ② 건강습관/관리/운동/비만/다이어트 ③ 미용  
④ 임신/출산/육아 ⑤ 시사이슈/시즌정보/생활환경 ⑥ 기타

#### 5. 관련 이미지 제공 여부

- ① 있음 ② 없음

#### 5-1. 몇 개 \_\_\_\_\_

#### 5-2. 제공 주체

- ① 병원제공 ② 언론사 제공 ③ 기타

### 5-3. 이미지 유형

- ① 질병/영상 사진    ② 검진/검사/진찰/진료상담 사진
- ③ 치료/시술/수술 사진    ④ 의사사진    ⑤ 그래픽이미지
- ⑥ 참고사진    ⑦ 기타

부록 2. 건강캠페인 기사 목록

<2011 한라일보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제주의 질병 50선>

연번	보도일	2011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	1.1	프롤로그		
2	1.6	뇌졸중	신경과	최재철
3	1.13	만성 경막하 혈종	신경외과	정유남
4	1.20	요추관 협착증	신경외과	허지순
5	1.27	근막통증후군	재활의학과	한은영
6	2.10	림프부종	재활의학과	임상희
7	2.17	어깨관절질환	정형외과	최성욱
8	2.24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정형외과	남광우
9	3.3	퇴행성 슬관절염	정형외과	김상림
10	3.10	수근관증후군	정형외과	서규범
11	3.17	코골이	이비인후과	김정홍
12	3.24	폐결핵	호흡기내과	이종후
13	3.31	인지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혁
14	4.7	정신분열증	정신건강의학과	이창인
15	4.1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신건강의학과	곽영숙
16	4.21	파킨슨병	신경과	송숙근
17	4.28	아토피피부염	소아청소년과	신경수
18	5.5	건선	피부과	김재왕
19	5.12	폐암	흉부외과	장지원
20	5.19	고혈압	심장내과	주승재
21	5.26	협심증(심근경색)	심장내과	김송이
22	6.2	기관지천식	내과	이재천
23	6.9	치주질환(잇몸병)	치과	김성준
24	6.16	턱관절(악관절)질환	치과	백경원
25	6.23	음성후두질환	이비인후과	임길채
26	6.30	심정지(심장마비)	응급의학과	김우정

연번	보도일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27	7.7	간경변증(간경화)	내과	조유경
28	7.14	전립선	비뇨기과	김영주
29	7.21	만성육아종질환	소아청소년과	신경수
30	7.28	방광염	비뇨기과	김성대
31	8.4	대상포진	피부과	김재왕
32	8.11	메니에르병	이비인후과	최승호
33	8.18	자궁암	산부인과	김성엽
34	8.25	자궁근종	산부인과	박철민
35	9.1	고위험임신	산부인과	심순섭
36	9.8	치매	신경과	이정석
37	9.15	담석증	외과	허규희
38	9.22	갑상선암	외과	최재혁
39	9.29	탈장	외과	김광식
40	10.6	간암	내과	송병철
41	10.13	유방암	외과	이창현
42	10.20	갑상선 기능항진증	내과	이상아
43	10.27	대장암	외과	장원영
44	11.3	백내장	안과	정진호
45	11.10	위암	외과	정인호
46	11.17	당뇨병	내과	고관표
47	11.24	대사증후군	내과	이대호
48	12.1	만성콩팥병	내과	김현우
49	12.8	류마티스 관절염	내과	김진석
50	12.15	녹내장	안과	이선호
51	12.22	위,십이지장 궤양	내과	송현주
52	12.29	에필로그		

<2012 한라일보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헬스케어>

연번	보도일	2012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53	1.1	들어가며		
54	1.6	얼굴 가꾸면 또다른 보배	성형외과	신명수
55	1.13	여성 갱년기 건강관리	산부인과	손영수
56	1.20	머릿속 시한 폭탄 '뇌출혈'	신경외과	심기범
57	1.27	감기야, 독감이야?	가정의학과	김현주
58	2.3	가슴 아픈 이야기	흉부외과	이석재
59	2.10	소변이 붉게 나온다	비뇨기과	허정식
60	2.24	목이 아프고 팔이 저려요	신경외과	이창섭
61	3.2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워요	소아청소년과	김영돈
62	3.9	혈액과 질환	진단검사의학과	강성하
63	3.16	아이가 소변을 자주봐요	소아청소년과	한경희
64	3.30	통증이 너무 심해요	마취통증의학과	조석주
65	4.13	암에 대한 도전: 항암치료의 성과	혈액종양내과	권정미
66	4.20	열성경련	소아청소년과	김승효
67	4.27	우울증,양극성 장애	정신건강의학과	김문두
68	5.4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	이비인후과	김정홍
69	5.18	어린이사시	안과	이혜진
70	6.1	분자진단과 맞춤치료의학	진단검사의학과	김영리
71	6.15	공포의 채장,담도암	외과	김민정
72	6.22	추간판탈출증	정형외과	서준영
73	6.29	비만과 대장암	소화기내과	나수영
74	7.6	고령임신	산부인과	강혜심
75	7.13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한상훈
76	7.20	여름방학 건강관리		
77	7.27	굴절교정수술의 이해	안과	정진호
78	8.3	발달지연(뇌성마비)	재활의학과	김보련
79	8.10	거품뇨와 단백뇨	신장내과	김소미

연번	보도일	2012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80	8.17	돌발성 난청	이비인후과	김세형
81	8.24	췌장의 남성종양	소화기내과	최은광
82	8.31	대동맥류	흉부외과	김수완
83	9.7	주관 증후군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	정형외과	서규범
84	9.14	사랑니'어떻게 해야 하나	구강외과	송지영
85	9.28	허리 디스크병	신경외과	허지순
86	10.5	대상포진과 대상 포진 후 신경통	마취통증의학과	최윤숙
87	10.12	심근경색증	심장내과	김기석
88	10.19	말초혈관 질환	심장내과	최준혁
89	10.26	협심증	심장내과	김송이
90	11.2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내과	주승재
91	11.9	항암치료	혈액종양내과	김우건
92	11.16	방사선치료	방사선종양학과	김귀언
93	11.23	골육종	정형외과	남광우
94	11.30	뇌종양	신경외과	이창섭
95	12.7	식도암	흉부외과	장지원
96	12.14	뇌경색	신경과	강사운
97	12.21	뇌동맥류	신경외과	양태기
98	12.28	어린이뇌경색(모야모야병)	신경외과	정유남
99	12.1	에필로그		

<2013 한라일보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3H>

연번	보도일	2013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00	1.4	연령대별 건강관리		
101	1.11	건강검진 어떻게 받아야 할까?	가정의학과	공미희
102	1.18	건강검진의 내시경	건강증진센터	정용희
103	1.25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	영상의학과	박희진
104	2.1	임신 전후검사	산부인과	강혜심
105	2.8	태아초음파	산부인과	심순섭
106	2.15	미숙아질환	소아청소년과	김영돈
107	2.22	영유아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한경희
108	3.1	유소아중이염	이비인후과	최승효
109	3.8	미숙아망막병증	안과	차동민
110	3.15	알레르기	소아청소년과	박신영
111	3.22	성조숙증	소아청소년과	신경수
112	3.29	소아간질	소아청소년과	김승효
113	4.5	소아빈혈	소아청소년과	강현식
114	4.12	소아청소년 비만	소아청소년과	강기수
115	4.19	전립선암	비뇨기과	박경기
116	4.26	행락철 응급상황	응급의학과	박현수
117	5.3	중독사고 대처	응급의학과	강영준
118	5.10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내과	이중후
119	5.17	영상과 의학의 만남, 영상의학	영상의학과	황임경
120	5.24	바이러스성 간염	소화기내과	조유경
121	5.31	대장폴립과 대장암	소화기내과	부선진
122	6.7	인터벤션 영상의학	영상의학과	김승형
123	6.14	초로기 치매	신경과	이정석
124	6.21	성인 ADHD	정신건강의학과	
125	6.28	폐경과 갱년기	산부인과	박철민



연번	보도일	2013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26	7.5	여름철 응급질환	응급의학과	강경원
127	7.12	비만은 질병이다	내분비대사내과	이상아
128	7.19	망막박리	안과	이선호
129	8.2	맹장염 수술	외과	김민정
130	8.9	과민성 방광	비뇨기과	김영주
131	8.16	축농증(비부비동염)과 코막힘	이비인후과	김정홍
132	8.23	노인의 구강관리	치과	감세훈
133	8.30	제주지역 수혈업무의 특수성	진단검사의학과	김선형
134	9.6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이석증)	이비인후과	김세형
135	9.13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신경과	송속근
136	9.27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내과	김진석
137	10.4	어깨질환	정형외과	최성욱
138	10.11	가려움증	피부과	천민석
139	10.18	어깨관절 질환의 주사치료	마취통증의학과	박선경
140	10.25	관절질환의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김선미
141	11.1	외상의 개념	응급의학과	송성욱
142	11.8	신경손상-두부외상 중심	신경외과	정유남
143	11.15	무릎관절 연골재생치료	정형외과	박용근
144	11.22	기흉	흉부외과	김수완
145	11.29	노인들에 흔한 내분비질환	내분비대사내과	이상아
146	12.6	불면증	신경과	오정환
147	12.13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관리	정신건강의학과	김문두
148	12.20	노인의 신체 변화와 영양관리	소화기내과	송현주
149	12.27	건강보고서 다시보기		

<2014 한라일보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메디컬센터>

연번	보도일	2014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50	1.3	방사선치료	방사선종양학과	김귀언
151	1.10	전립선암 로봇수술	비뇨기과	박경기
152	1.17	인터벤션(상)뇌혈관 질환 치료	신경외과	양태기
153	1.24	인터벤션 영상의학(중)암치료	영상의학과	김승형
154	2.7	인터벤션(하)심혈관 중재시술	심장내과	김기석
155	2.14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소개		
156	2.21	구강암	이비인후과	임길채
157	2.28	치성 상악동염 협진	이비인후과/치과	김정홍/ 송지영
158	3.7	다학제 협진	방사선종양학과	김영석
159	3.14	소아 백혈병	소아청소년과	강현식
160	3.21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	핵의학과	송희성
161	3.28	협진-중두개저 뇌하수체 종양	신경외과/이비인후과	이창섭/ 김정홍
162	4.4	녹내장	안과	김영국
163	4.11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의학과	윤석민
164	4.18	손떨림과 파킨슨병	신경과	송숙근
165	4.25	관광도시 제주 응급의료체계	응급의학과	송성욱
166	5.2	양악수술? 성형수술?	치과	송지영
167	5.9	동전 삼킨 내 아이 어떡해?	소아청소년과	강기수
168	5.16	소아골절-성장판 손상	정형외과	송미현
169	5.23	노년기 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혁
170	5.30	잘 들리지 않는데...	이비인후과	송찬일
171	6.6	간이식 적응증과 최신 경향	외과	김영규
172	6.13	노령층 성생활과 현실적 문제	비뇨기과	김성대
173	6.20	퇴행성 관절염의 재활 치료	재활의학과	김보련
174	6.27	헬리코박터균	소화기내과	나수영

연번	보도일	2014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75	7.4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사요법	신장내과	김현우
176	7.11	담낭용종에 대한 이해	소화기내과	정승욱
177	7.18	목 통증 부르는 자세와 예방법	재활의학과	김선미
178	7.25	과민성 장증후군	소화기내과	부선진
179	8.1	스포츠손상	정형외과	최성욱
180	8.8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개		
181	8.15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마취통증의학과	최윤숙
182	8.22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준비	응급의학과	박현수
183	8.29	안드로겐탈모증	피부과	천민석
184	9.5	뇌졸중의 영상진단	영상의학과	고명주
185	9.12	제주지역암센터 소개		
186	9.19	방광암의 진단과 치료	비뇨기과	허정식
187	9.26	암과 비만	가정의학과	공미희
188	10.3	레이노 현상	류마티스내과	박은정
189	10.10	부비동염(축농증)수술의 진화 -내비게이션 이용 영상유도 수술법	이비인후과	김정홍
190	10.17	음주와 건강	소화기내과	조유경
191	10.24	소변 색깔이 이상해요	내과	김미연
192	11.7	2014년 에볼라 아웃브레이크	미생물학	이근화
193	11.14	술과 건강	소화기내과	송병철
194	11.21	유방암 바로 알기	외과	김지영
195	11.28	근골격계 영상검사	영상의학과	이경렬
196	12.5	유방영상의학	영상의학과	고수연
197	12.12	속 편하게 사는 생활습관	소화기내과	송현주
198	12.19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어떡하나?	정신건강의학과	곽영숙
199	12.26	다시 보기		

<2015 한라일보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연번	보도일	2015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200	1.9	어지럼증	신경과	강지훈
201	1.16	노인성 폐렴	호흡기내과	이종후
202	1.23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관리	정형외과	김상림
203	1.30	노인성 난청	이비인후과	김세형
204	2.6	부인과 암검진	산부인과	박철민
205	2.13	담석증	외과	김민정
206	2.27	골다공증 약 복용으로 발생하는 치과질환	치과	송지영
207	3.6	하지정맥류 or 심부정맥혈전증	흉부외과	김수완
208	3.13	폭식증		
209	3.20	통풍	류마티스내과	박은정
210	3.27	불임	산부인과	손영수
211	4.3	인플루엔자 감염	감염내과	유정래
212	4.10	충치균	치과	감세훈
213	4.17	후각 감퇴 및 소실로 인한 후각장애	이비인후과	김정홍
214	4.24	프로포폴 중독	마취통증의학과	이애령
215	5.1	메니에르병	이비인후과	송찬일
216	5.8	잠복결핵	소아청소년과	최재홍
217	5.15	골다공증	정형외과	박용근
218	5.22	알레르기 비염	이비인후과	강주완
219	5.29	말단비대증	내분비내과	진상욱
220	6.5	무지외반증	정형외과	강현성
221	6.1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미생물학	이근화
222	6.19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내분비내과	유소연
223	6.26	암환자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김선미

연번	보도일	2015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224	7.3	치과치료시 주의할 질병과 약물	치과	감세훈
225	7.10	발달지연	소아청소년과	김승효
226	7.17	식도이물질	소화기내과	송현주
227	7.24	노인요통	마취통증의학과	최운숙
228	7.31	고막천공	이비인후과	송찬일
229	8.7	헬리코박터균	소화기내과	나수영
230	8.14	각막염	안과	정진호
231	8.21	여드름	피부과	천민석
232	8.28	사시	안과	이혜진
233	9.4	만성 콩팥병	신장내과	김미연
234	9.11	담낭암	소화기내과	정승욱
235	9.18	비출혈	이비인후과	강주완
236	10.2	눈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안과	김진영
237	10.9	대장암의 진단과 예방	소화기내과	부선진
238	10.16	소아부비동염	이비인후과	김정홍
239	10.23	안면마비	이비인후과	송찬일
240	10.30	치밀유방	외과	이창현
241	11.6	겨울철 응급질환	응급의학과	강경원
242	11.13	7대 암 검진 권고안	가정의학과	공미희
243	11.20	흡연 : 니코틴에 의한 중독	가정의학과	김현주
244	11.27	팔다리 붓고 아픈 '림프부종'	재활의학과	김보련
245	12.4	임신성 당뇨	산부인과	강혜심
246	12.11	재활로봇이 뇌졸중 환자의 희망으로	재활의학과	한은영
247	12.18	고개숙인 남성들의 고민	비뇨기과	김성대
248	12.25	위암에 대해서	종합검진센터	정용희

제민일보 '생명연장의 섬 로하스 프로젝트'

2013년 기사목록

연번	보도일	2013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	5.22	마음으로 극복하는 질병-암	혈액종양내과	최일봉
2	6.5	심장건강의 빨간불-부정맥	심장내과	장진근
3	6.19	생활 습관 영향 받는 질병-대장암	외과	김민수
4	7.4	소리없이 찾아오는 질병-담낭암	소화기내과	차병효
5	7.17	사랑의 나눔을 생각하며-장기이식	외과	서신도
6	8.14	가장 높은 사망률-폐암	호흡기내과	송성현
7	8.28	여성암 중 발병 2위-유방암	유방·내분비외과	민연기
8	9.11	방치하면 합병증 우려-역류성 식도염	소화기내과	최아라
9	9.25	노화 현상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환-눈물흘림	안과	김창엽
10	10.9	소아감염 질환-수족구병 수두 볼거리	소아청소년과	변정림
11	10.4	여성에게 치명적인 질병-자궁경부암	산부인과	문영진
12	11.6	야외활동 많은 계절에 조심 -가을 전염병	응급의학과	나유하
13	11.22	지긋지긋한 관절염&인공관절 수술	정형외과	이상엽
14	12.4	귓속의 소음 전쟁-이명(귀울림)	이비인후과	박경유
15	12.17	머리 속의 시한폭탄 뇌졸중(뇌혈관질환)	신경외과	이상평

2014년 기사목록

연번	보도일	2014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16	1.22	갑오년 새해맞이 진료과장 좌담		
17	2.5	대상포진과 신경통	마취통증의학과	양춘우
18	2.19	불면증	정신건강의학과	최인철
19	3.5	제주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문이상
20	3.20	수면무호흡증	이비인후과	이종숙
21	4.2	호흡곤란 유발하는 기흉	흉부외과	정요찬
22	4.18	간암	소화기내과	김진동
23	4.30	혈뇨와 단백뇨	신장내과	오윤정
24	5.15	직립보행의 저주, 요통	신경외과	유재철
25	5.29	지끈지끈한 편두통	신경과	전종은
26	6.19	척추측만증	정형외과	이상민
27	11.12	독감과 감기의 다른점	감염내과	전윤희
28	11.26	어지럼증	신경과	이보람
29	12.9	서맥성 부정맥	심장내과	장진근
30	12.24	급성 백혈병	혈액종양내과	한치화

2015년 기사목록

연번	보도일	2015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31	1.21	안면마비와 안면경련	신경외과	이상평
32	2.3	고혈압	심장내과	조성원
33	2.25	목 디스크	신경외과	조재익
34	3.10	청소년 비만	소아청소년과	신재훈
35	4.15	척추수술 후 통증 증후군	마취통증의학과	전상윤
36	4.29	여성의 갱년기	산부인과	임기은
37	5.20	열성 경련	소아청소년과	이지현
38	6.8	해외여행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감염내과	전윤희
39	6.22	약시	안과	안정현
40	7.6	아토피 피부염	피부과	강주현
41	8.3	여름철 건강관리	응급의학과	문이상
42	8.31	신진대사와 온열치료	방사선종양학과	최일봉
43	9.14	가을철 열성질환	응급의학과	문이상
44	10.5	환절기 천식 관리	호흡기내과	주진영
45	10.19	가와사키병	소아청소년과	임윤주
46	12.1	혈뇨	신장내과	오윤정
47	12.8	겨울철 건강관리	응급의학과	문이상
48	12.22	스테로이드 부작용	내분비내과	강선미



2016년 기사목록

연번	보도일	2016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49	1.4	심뇌혈관질환 예방	신경외과	이상평
50	1.20	소아 저신장증	소아청소년과	신재훈
51	1.25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	정형외과	안정태
52	2.1	당뇨와 말초혈관 합병증	흉부외과	이길수
53	2.15	자궁내막증	산부인과	임기은
54	2.22	성조숙증	소아청소년과	조미진
55	2.29	담석증	소화기내과	유기덕
56	3.7	관상동맥질환과 예방	심장내과	김성식
57	3.14	손떨림 증상	신경과	전종은
58	3.21	항문질환	외과	김민수
59	3.28	갑상선 결절	내분비내과	오정현
60	4.11	디스크질환	신경외과	백진욱
61	9.7	가을철 진드기 교상		

2018년 기사목록

연번	보도일	2018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62	1.23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과	노건웅
63	2.6	건강염려증	진단검사의학	김우진
64	2.20	중증외상환자 치료	외상외과	권오상
65	3.6	C형 간염	소화기내과	오동준
66	3.20	턱장애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조성진
67	4.3	장바이러스 감염증	소아청소년과	김선자
68	4.17	미세혈뇨	신장내과	류지원
69	5.1	노년기 척추 통증	신경외과	김성환
70	6.3	직업환경의학과와 특수건강검진	직업환경의학과	오원기
71	6.17	남모르는 고통, 생리통	산부인과	임기은
72	7.1	온열질환	응급의학과	오지열
73	7.15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내과	송성헌
74	7.29	어깨통증	정형외과	박민석
75	8.12	여름철 수인성 질환	감염내과	전윤희
76	9.3	청춘의 고민, 여드름	피부과	강주현
77	9.17	급성 췌장염	소화기내과	김은정
78	10.8	당뇨병	내분비내과	김이경
79	10.22	전립선비대증	비뇨기과	송재만
80	11.5	영아산통	소아청소년과	이동준
81	11.19	황반변성	안과	문상원

2019년 기사목록

연번	보도일	2019 주제	진료과	연재교수
82	3.11	종합건강검진	가정의학과	김영석
83	3.25	권역희귀질환거점센터	진단검사의학과	김우진
84	4.8	만성 경막하 출혈	신경외과	백진욱
85	4.22	전립선암	비뇨기과	송재만

부록 3. 건강캠페인 기사 사례



뉴스

제주인의 건강보고  
서

### [제주의 질병 50선](2)뇌졸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뇌(腦)기능 이상 질환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입력 : 2011. 01. 06. 00:00:00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반쪽 마비를 들 수 있다. 한쪽의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고혈압·흡연·과도한 음주 등 위험요인 급성시 늦어도 3시간내 치료 시작돼야

평소 고혈압과 흡연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내던 72세의 강모씨는 최근 수일 전부터 일시적으로 오른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말도 어눌하게 나오는 일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진찰 결과 환자는 오른손의 근력이 왼손에 비해 약해져있는 상태였고 약간의 구음장애(構音障礙, articulation disorder=말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함)를 보였다. 청진에서는 왼쪽 경동맥에서 심장박동에 맞춰 '씩씩'거리는 잡음이 청취됐다. 뇌자기공명검사 결과 왼쪽 대뇌에 작은 크기의 다수의 뇌경색이 관찰됐고, 혈관조영술에서 왼쪽의 경동맥이 동맥 경화로 심하게 좁아진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경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경과를 회복해 현재는 뚜렷한 장애 없이 외래에서 투약을 유지하며 경과를 관찰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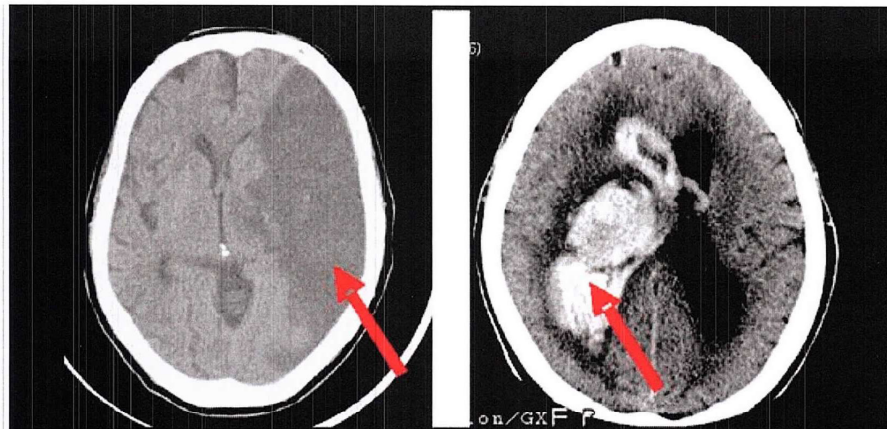
▶ 뇌졸중=뇌혈관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병을 일컫는다. 이같은 뇌혈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마비,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을 뇌졸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풍(中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뇌졸중, 뇌혈관질환이 병에 대한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뇌졸중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한다.

▶ 뇌졸중의 원인=뇌졸중은 뇌혈관에 발생하는 병이므로 뇌혈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은 모든 혈관과 마찬가지로 심장으로부터 대동맥을 거쳐 경동맥 그리고 머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심장, 경동맥 혹은 머리안에 생기는 어떠한 혈관질환이라도 뇌졸중을 일으킬수 있다.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심장안에 혈전이 고인다든지 뇌동맥의 동맥경화 혹은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증, 두개강안에 있는 동맥의 동맥경화, 이 모든 것이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포함해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 등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 사진들은 뇌 CT 촬영자료다. 왼쪽은 뇌경색, 오른쪽은 뇌출혈시 모습이다.

▶ 뇌졸중의 증상=뇌졸중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뇌기능의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들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반쪽 마비다. 즉 한쪽의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다. 양쪽 팔다리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지 않고, 팔다리가 늘 시리고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는 뇌졸중 이외에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말더듬증, 시각장애, 의식장애, 보행장애, 갑작스런 심한 두통 등이 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 급성 뇌졸중 발생시 대처방안=뇌졸중은 치료에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병이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즉시 방문해야 한다. 늦어도 3시간안에는 치료가 시작돼야 하므로 최대한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완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119를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응급실을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며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치료를 지연시켜 뇌졸중으로 인한 뇌기능의 손상을 커지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손가락을 따거나 입에 무언가를 넣는 행위(우황청심환 등)는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환자를 더욱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최재철 뇌혈관센터장(신경과 전문의)은 "뇌졸중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응급의료서비스(119)를 이용해 증상발생후 병원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증상발생후 병원도착까지 시간뿐만 아니라 초기 신경학적 검사, CT 촬영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 [Q&A]

1. 뇌졸중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특별하게 뇌졸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뇌졸중 환자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특히 신선한 야채, 과일, 저지방 식품 및 생선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을 의식해 육류나 생선류를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2. 적당한 음주는 뇌졸중에 좋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술을 하루에 두 잔까지 마시는 것은 뇌경색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 두 잔만을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잔 이상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 때문에 뇌졸중 환자에게는 술을 즐기는 것을 절대로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젊은 사람에서 폭음할때 뇌졸중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뇌출혈 역시 음주량과 비례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나이도 젊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도 없는데 왜 뇌졸중이 오나요=일반적인 뇌졸중의 발병원인은 주로 나이든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 젊은 사람에게서도 물론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다면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혈액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굳게 되는 질환, 모야모야병, 루프스,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심방중격난원공(심방사이에 나 있는 작은 구멍), 편두통, 운동이나 외상 등에 의해 동맥벽이 찢어지는 동맥박리, 뇌혈관기형 등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문의 의견/최재철 뇌혈관센터&신경과]"알아야 이길 수 있어"**



뇌졸중(腦卒中)은 현재까지 비교적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의 하나이다.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뇌졸중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뇌졸중을 한번 경험했던 환자들의 경우 재발을 막는데 아주 중요하다.

뇌졸중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뇌졸중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

인 2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1/3은 사망하고 대체적으로 1/3은 장애인으로 남게 되고 1/3정도만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한 해 우리나라에서 약 8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해 약 2만4000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하루 60~70명, 매 20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약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첫째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진단기준으로 수축기 혈

압이 140mmHg이상, 이환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인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50대에는 4배가 더 높다. 둘째 흡연도 주요 원인인데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1.5배가 높다. 중요한 것은 흡연량이 많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당뇨병인데 공복시 혈당이 126mg/dL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약 2배가 높다. 넷째 고지혈증(콜레스테롤)역시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다. 고지혈증 환자는 뇌졸중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1.8~2.6배 더 높는데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으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균형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다섯째 경동맥 협착증은 약 65세 이상 인구에서 5~9%에서 발견된다. 경동맥이 동맥 경화에 의해 좁아져 있는 경우 이런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가 높다. 여섯째 심방세동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 중의 하나이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도 50대 뇌졸중 발생률이 4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뇌졸중은 치료를 빨리 받으면 받을 수록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갑작스런 언어장애, 팔다리마비 등의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소리없는 불청객...3대 주요 사망원인

"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WE호텔 공동건강기획  
생명연장의 섬 '로하스 제주' 프로젝트  
<15> 머리 속의 시한폭탄 뇌졸중(뇌혈관질환)

윤주형 기자 승인 2013.12.17 13:46



▲ 항간에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졸중은 암, 심장병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사진은 뇌졸중 환자 진료모습.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편마비, 언어장애 증세  
'시간이 생명' 증상 발생 시 바로 병원 찾아야

뇌졸중은 항간에서는 흔히 중풍(中風)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뇌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주요 사망원인에 해

당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해야 한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후유장애가 남게 돼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뇌졸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뇌혈관질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누어진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혈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전형적인 특징으로는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흔히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이나 편마비, 언어장애, 의식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심한 어지럼증이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신경학적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뇌졸중에 대해 제주한라병원 이상평 신경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 △ 초기대응 놓치면 크게 위험해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을 경우는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에 비유하면 '현장에서 빨리 뿌리는 물 한 바가지는 나중에 도착한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것처럼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뇌졸중을 치료하는 현장의 의사들은 말 그대로 '시간이 생명(Time is Brain)'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즉 병원에 일찍 오면 살 수 있고 늦게 오면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뇌 속의 굵은 혈관이 막히면 늦어도 3시간 이내에는 뇌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는 약제를 투여하거나 혈관내시술로 다시 혈관을 뚫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촉박한 시간에 해당된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뇌경색이 고착되고 이어서 뇌부종과 함께 뇌압의 상승이 동반되게 되면서 환자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뇌출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뇌경색보다 뇌압의 상승속도와 임상양상의 진행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체없이 내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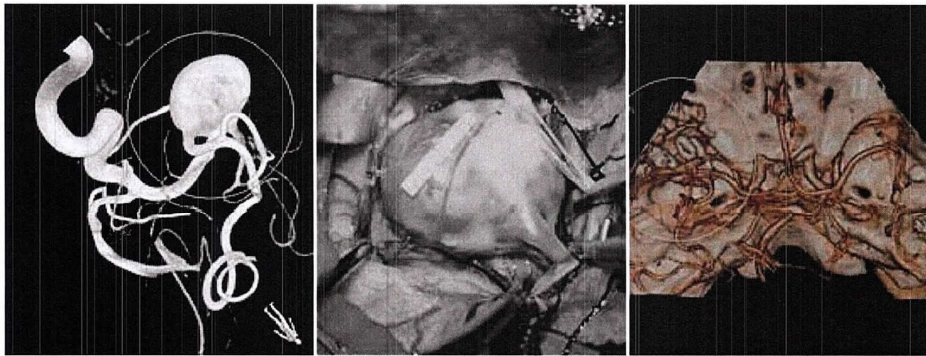
### △ 원인 진단 후 맞춤형 치료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뇌경색과 뇌출혈을 감별하기 위하여 신속한 진찰과 함께 응급 CT나 MRI 촬영을 시행한다. 일단 뇌경색으로 진단되면 막힌 혈관

의 부위와 정도를 파악하고 즉시 혈류를 재개시키기 위한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혹은 혈소판억제제 등의 약물을 신속히 투여하고 동시에 동맥속으로 미세한 카테터를 삽입하여 막힌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혈관내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약물투여나 시술은 혈관이 막힌 뒤 3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생기자마자 신경외과 및 신경과, 응급의학과로 구성된 뇌혈관진료팀이 갖춰지고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뇌혈관 전문병원에 빨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출혈인 경우 출혈량이나 터진 혈관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는데 일단 절대 안정과 지혈제, 뇌압강하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고 출혈로 인하여 뇌가 압박을 보이면 즉시 수술을 통해 뇌출혈을 제거한다.



▲ 사진 왼쪽부터 수술 전·중·후

### △ 뇌동맥류, 치료 난이도 높아져

출혈 원인이 뇌동맥이 파리처럼 부풀러졌다가 터지는 뇌동맥류나 혈관기형에 의한 출혈의 경우에는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 동맥내로 직접 접근하여 특수 코일로 파열된 부위를 막기도 하고(혈관내 색전치료술) 혹은 직접 개두술을 시행하여 동맥류를 묶어주거나(클립결찰술) 혈관기형을 제거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뇌출혈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혈관수술팀의 구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첨단 수술 장비가 필요하다. 최첨단 미세수술현미경이 필수적이고 출혈 부위로 정확히 안내해주는 신경수술-네비게이션과 수술 중 뇌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신경감시장치 등의 다양한 장비를 동원하여 수술 결과를 좋게 해준다.

### △ 평소 혈관건강 유지가 현명

신경계 환자는 응급치료만큼 수술이나 시술 후의 환자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 상태에 따라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며 근본적인 원인질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를 함께 시행하게 된다. 급성기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상 생활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위험인자 개선에 대한 교육과 교정이 필요하다.

가급적 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집단 자문과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의 변경으로 교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위험인자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현대의학과 달리 21세기 미래의학의 핵심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인자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첨단 진단장비를 이용해 뇌혈관 상태를 파악해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혈관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 도움말=이상평 제주한라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윤주형 기자 21jemin@jemin.com

#### '건강 100세'를 위해 주의할 점

##### [전문이 기고] "건강을 말한다"

##### 제주한라병원 신경외과 이상평 전문의

예로부터 나이 60이 되면 환갑이라 하여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를 하였는데 어느덧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100년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건강하게 10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 100세'보다는 '건강 100세'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대의학은 이미 인체의 일부를 인공으로 교체하거나 심지어 간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까지 이식하는 첨단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뇌혈관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뇌를 통째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좋던 싫던 혈관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혈관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에 대해 꾸준하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관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모두 해당된다.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스트레스, 고지혈증, 운동부족 등이다. 흔히 주위 사람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모두들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혈관에 나쁜 습관들이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혈관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나타난 것이다.

다행히 제주도의 뇌졸중 사망률이 전국 최저인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이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영향과 함께 뇌혈관질환 분야의 진료수준이나 의료 환경이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히 타지방보다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고 고혈압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혈압약을 잘 복용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100년의 기간을 축복으로 여기려면 평소에 혈관위험인자들의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